

# 조선왕조 500년 역사의 주인공들 한자리에

## 44 화합의 축제-종묘대제

매년 5월 첫째 일요일은, 조선의 왕, 왕비들이 모여 대화합의 축제를 펼친다. 아들을 지독하게 미워한 아버지 태조, 형제들을 죽이고 자리를 쟁취한 태종, 조카를 죽이고 왕위에 오른 세종, 숙부에게 죽임을 당한 단종, 발병의 성군 세종, 재위 9개월인 인종, 52년간 왕 노릇한 영조, 나라를 일본에게 넘겨준 순종 등, 모두 차별 없이 정장을 차려입고 한 자리에 모인다.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던 혼령들이 고이 간수한 곤룡포를 꺼내 입고 종묘로 모인다.

재위 중 입적에 관계없이 황제 혹은 대왕이란 칭호를 앞세워 모여든다. 종묘 수문장은 연이어 들이닥치는 호화판 가마의 주차관리에 정신이 없다. 전 날부터 분주히 치장한 왕비들도 모여든다. 시종드는 궁녀들이 없는지라 손수 화장을 하고, 최대한 화려하게 차려입고 종묘에 들어선다. 남편과 함께 입장하기도 하고 홀로 입장하기도 한다. 애증은 모두 떨치고 온화한 웃음으로 들어와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위패에 조용히 앉는다. 500년 역사의 주역들이 한자리에 모여 후손들의 예를 받는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 복리(福利)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통령 취임식 때 낭독하는 선서문이다. 절대군주인 조선 왕들에게선 선서의식이 없다. 있다면 이런 문구일 것이다.

‘과인은 국법을 준수하고 종묘사직을 보위하며 만백성의 복리증진과 민족문화 창달에 노력하여 임금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여조상생 앞에 엄숙히 선서하노라.’

국가 보위와 종묘사직 보위는 동격이다. 종묘(宗廟)는 조선왕조 왕과 왕비의 신주를 봉안하고 제사를 받드는 곳이다. 사직(社稷)은 국토와 곡식의 번창을 기원하는 제사 및 그 장소이다. 사(社)는 토지신(土地神), 직(稷)은 곡신(穀神)을 상징한다. 사직을 국가나 조정 자체로 인식해 왔다.

조선왕조를 건국한 태조고황제는 수도를 한양으로 옮기고 왕궁의 동쪽에 종묘를 건립하고 서쪽에 사직단을 세웠다. 정전(正殿)은 건평 1270㎡로 조선시대 단일 목조건물로는 세계적으로 그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추정된다. 영녕전(永寧殿)은 종묘의 별관이다. 세종 때 중앙에 태묘(太廟) 4칸, 동서에 협실 1칸씩 6칸으로 지어졌으나 임진왜란 때 불타버려 광해군 즉위년에 10칸으로, 현제는 16칸으로 증축하였다. 정전에는 19실 49위, 영녕전에는 16실 34위가 있다. 영녕전에는 정종, 문종, 단종, 경종 등 왕권이 미미했던 왕과 추존왕들이 모셔져 있다. 정전이 축제의 메인스타디움이라면 영녕전은 마이너리리그 선수



제향을 시작하기 전 제관들이 정해진 자리에 선다.

들의 합숙소 같다.

종묘는 뛰어난 건축미와 600년 넘도록 이어져 내려온 제례 행사 등의 문화적 가치가 인정되어 199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2001년에는 종묘 제례 및 제례악이 국내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으로 등록되었다.

당사자의 정당성에 결함이 없어야 종묘에 위패가 모셔진다. 개인의 영광이자 후손의 자랑이다. 연산군, 광해군은 종묘에 위패가 없다. 영조가 그토록 애를 썼지만 어머니 숙빈 최씨를 왕후로 추존하지 못했다. 따라서 자각미달로 신주가 종묘에 봉안되지 못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국립현충원에 묻히려 면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종묘제례는 왕조 조상들에게 지내는 제사이다. 조선왕조에서 지내는 여러 제사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한 제사다. 그래서 종묘대제(宗廟大祭)라고도 한다. 왕릉별로 지내는 제향이 개별 제사라면 종묘제례는 합동제사다. 조선조 최대의 국가행사였다. 종묘대제는 본래 사맹삭(四孟朔)이라 하여 춘하추동 사계절의 첫 달과, 납월(臘月)이라 하여 12월에 날을 잡아 1년에 다섯 번 지내고, 영녕전의 제례는 봄, 가을로 1년에 두 번 지냈다. 지금은 통합하여 양력 5월 첫째 일요일에 지낸다. 제사의 의미도 있지만 문화유산 보존 및 재현의 의미가 더 크다.

5월 4일 일요일, 축제를 망치지 않으려는 역대왕들의 기원인양 날씨가 화창하다. 오전에는 영녕전에



제례악을 연주하는 모습(위), 초헌관이 제향을 기다리고 있다.

라 들어오면 제례가 시작된다. 이때 초헌관인 임금이 소자에서 나와 정전으로 이동한다. 제관들도 손을 씻고 정해진 자리에 선다.

신을 맞는 절차는 신관례로부터 시작된다. 하늘에 제시는 혼백을 모시는 의식으로, 향을 세 번 피우고 술(음창주)을 세 번에 나누어 관자통에 붓고 신께 선물로 흰 비단 폐를 드린다.

천조례는 신을 위해 상을 차리는 절차다. 제향에 쓰는 소, 양, 돼지의 생각과 피, 좁쌀을 기름에 버무리고 섞고 함께 태운다. 땅에서 자란 동식물을 봉헌하는 의식을 통해 국가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한다.

신이 즐기는 절차는 초헌례로부터 시작된다. 초헌관인 임금이 첫잔인 예제를 드리면 제관이 축문을 읽는다. 역대 왕들과 받들어 올리는 한 잔 술에 최대 정성을 담아 백성과 왕실의 번영을 축원한다. 아헌례는 세자나 영의정이 두 번째 잔을 올린다. 세 번째 잔을 올리는 종헌례는 종헌관이 맡는다. 세 번에 나눠 잔을 올리는 것은 최고의 정성을 의미한다.

종묘대제에는 음악과 무용이 수반되어 분위기와 위상을 높인다. 종묘제례악은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다. 제례악 중 본태평 1곡과 정대업 11곡은 세종이 직접 지었으며, 이후 세조가 고쳐서 완성한 곡이다. 서양음악사에서 제례악은 17세기 바로크시대에 시

## 왕조 조상에 올리는 합동제사로 조선 최대 행사 종묘제례·제례악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 등록

서, 오후에는 종묘 정전에서 제향이 봉행되었다. 종묘대제가 있는 줄 모르고 종로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엉겁결에 보시름을 받는다. 11시 30분~12시 30분에 종로1.2가로 여가행렬이 지나간다. 궁을 나선 임금님의 행차가 종묘로 가는 중이다. 전문연기자가 아닌 출연자군, 연출된 풍경이라 자연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볼만하다. 여기저기서 셔터를 누르느라 바쁘다. 왕의 얼굴을 보려고 우르르 몰린다.

왕은 제향에 앞서 3일 전부터 몸과 마음을 엄숙하게 깨끗이 한다. 이 기간 동안에는 문상이나 문병을 하지 않으며 음악도 듣지 않고 형삼(刑觀)문서에 서명하지 않는다. 출궁하는 날 임금을 모시는 신하들은 궁궐 앞에 나누어 서고 호위 관원을 비롯한 출궁 행렬이 정렬하면 상서원 관원이 옥새를 받들고 문안한다. 임금이 수레에 올라 궁궐 밖의 어연(御輦)임금이 타는 가마를 향하면 일산(日傘) 햇빛을 가리는 양산과 부채를 든 시위가 따른다. 임금이 어연에 오르면 신하들도 일제히 말을 타고 함께 출발한다. 그 뒤에는 호위부대인 현무대가 따른다.

종묘대제는, 신을 맞이하는 절차→신이 즐기는 절차→신이 베푸는 절차→신을 보내는 절차로 진행된다. 정전 남심문에서 축원을 모시고 신로(神路)를 따

작되었다. 종묘제례악은 이보다 200년 앞섰다.

신이 베푸는 절차를 음복례라 한다. 조상신이 들었던 술과 음식을 후손이 나누어 먹는다. 종묘대제의 마지막 절차는 신을 보내는 망묘례다. 종묘에 머물던 왕, 왕비들의 혼령이 떠날 시간이다. 제사에 사용된 폐와 향을 태울 때 타고르는 연기와 함께 떠난다. 내년을 기약하며 뽀뽀이 떠난다. 동구릉, 서오릉으로 향하는 혼령들은 관광버스로 함께 가면 될 것이고, 정종과 신의왕후는 남북 경계령의 눈치를 보며 휴전선을 넘어가고, 영월까지 가야하는 단종은 서둘러 떠나야 한다. 세종과 정조는 드라마 촬영장에 들러 후손을 두고 가도 좋다. 모시고 갈 특별 교통편이 없을까.

혼령들이 생전의 애증을 흘릴 틈고 한자리에 모인 것처럼, 행사가 참가한 인사들의 면면과 이력, 색깔도 다채롭다. 평소에는 물과 기름, 창과 방패 같은 정채권 인사들이 종묘대제 봉행위원회에 어깨동무하듯 함께 이름을 올렸다. 역시, 죽은은 최대의 법문이다. 대규모 화합의 축제다. 아무리 무지하고 오만해도 생로병사의 진리를 알기 때문일까.

글=이우상(소설가 asdfsang@hanmail.net), 사진=최진원(사진작가)

### 『간화정로』의 저자 ‘월암 스님’의 또 하나의 대작

# 이번에는 『돈오선』이다

돈오선이란 자기의 성품이 본래 청정(淸淨)함을 요달하여 번뇌를 보리로, 생사를 열반으로 돌려쓰는 실천행이다.

**한산 월암 閑山 月庵 스님**

1973년 경주 중생사에서 도문(道文) 큰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였다. 중국에 유학하여 선학을 연구하고 여러 선종 조경(宗經)을 참배하였다. 중국과 한국의 제법선원에서 수선안거하였다.

지금은 벽송선원에서 선교경수(禪敎兼修), 선농일치(禪農一致), 불이선(不二) 운동 등 한국 간화선종 진전에 노력하고, 그 일환으로 선회(禪會)를 열고 『간화정로(看話正路)』를 저술하였다.

글\_ 월암月庵 | 499면 | 20,000원

금을 찾기 위해서 광맥을 찾듯이 실참을 위해서는 철저한 수행체제의 이해와 점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소홀히 한 채 수행을 접근하는 것이 선수행자에게는 가장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해 못하고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한국불교의 모순이라고 생각할 때 이번 월암 선사사의 돈오선의 저술이 모든 수행자들에게 귀감의 지침이 될 것이다.

- 설정 스님 (덕숭총림 수좌)

돈오선은 조사선과 간화선의 핵심사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문적으로 깊이 다룬 문헌이 없어 아쉬움이 많았다. 그런데 이번에 월암선사가 돈오선에 대해 상세하게 밝혀주어서 진정견해(眞正見解)를 세우고, 나아가 선문의 화합과 활력을 불어넣어 정진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선자(禪者)에게 꼭 권하고 싶은 필독서이다.

- 의정 스님 (상원사 용문선원 선원장)

월암 스님은 지금까지 '돈오' (즉각 깨달음) 이후 '담오'의 문제로 성철 선사-보조 국사의 문도들 사이에서 감정적 대립만으로 치달으면서 간과해 버린 논쟁의 역사성과 현실적 맥락들을 하나하나 풀어헤치고 있다.

- 한겨레신문

“그간의 돈-점 논쟁이 경쟁적이고 소모적이었다.”고 반성하며 “다양한 논쟁수행론을 회통적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조심스럽게 펼친다.

- 불교신문

돈오선의 근원적 가치를 인식할 때 돈점논쟁의 뿌리와 결구지를 함께 파악할 수 있다는 인식, 그것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수행하고 어떻게 깨달을 것인가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이기도 하다.

- 현대불교신문

**간화정로 看話正路**  
월암月庵 | 512면 | 18,000원

클리어마인드 02)2198-5151